



3월 19일 오후 4시 김포 국제공항에 도착한 케리·머레이와 브래드·어트



19일 오후 6시 조선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

고 쳐서 비행선에 접근시키는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머레이가 친 불이 4백 야드 지점에 있던 한 갤러리의 호주머니에 꽂히는 재미 있는 풍경도 연출됐다.

함께 열린 묘기 시범에서는 레슨 프로이자 TV 해설가인 브래드·어트가 2개의 불을 동시에 때리기, 부러진 클럽으로 불 때리기 등 25가지의 진기를 소개, 갤러리들을 열광시켰다.

한편 케리·머레이와 브래드·어트는 30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장타·라운드레슨 등을 갖는다.

케리·머레이 장타 비결은 야구투수 경력 덕

186cm, 83kg의 훗칠한 키, 단단한 체구를 자랑하는 케리·머레이의 장타 비결은 야구 투수의 피칭 폼을 원용하는 데서 출발한다.

머레이는 「사이드나 언더 스톱 우치럼 손을 뒤로 많이 빼고 타켓을 향해 체중을 실어 던지듯이 스

웨이를 많이 하는 것이 장타 비결의 첫째 요건」이라고 강조한다.

즉 스윙 아크가 작은 평범한 스윙으로는 장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드라이버 샷의 스윙 궤도를 보통보다 1.5배 크게 한다. 그레야만 스윙 중심이 오른쪽 무릎에서 왼쪽으로 크게 이동함으로써 스웨이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그는 「70년대 프로야구 투수생활을 7년간 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의 톱 프로골퍼 오자끼도 야구투수 출신이며, 한국의 유백만, 백인천씨도 장타를 자랑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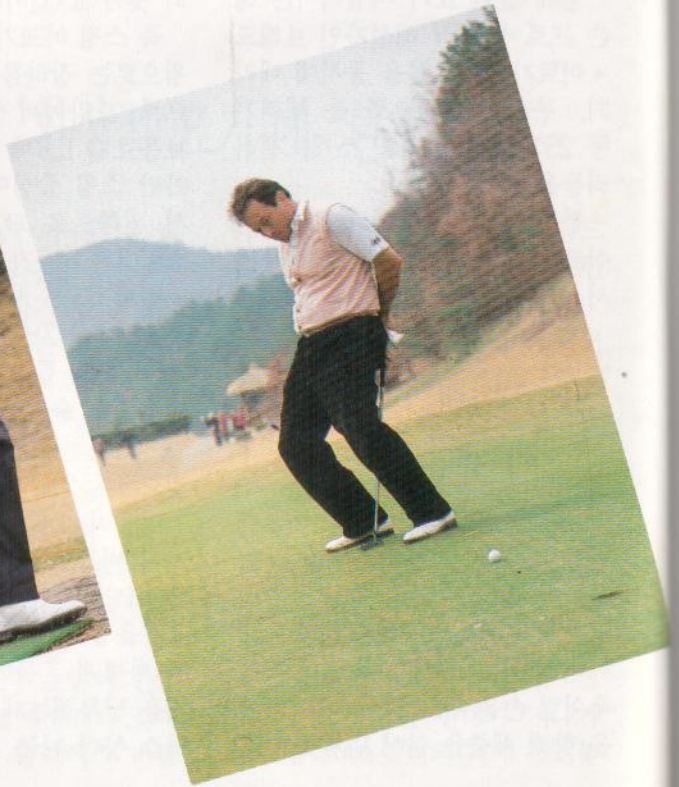
아울러 머레이는 장타의 또 한 가지 비결로 심호흡을 강조한다. 즉 어드레스하기 전에 반드시 심호흡을 2~3차례 한 후 어깨와 팔을 가볍게 흔들어 긴장을 풀어줄 것을 당부했는데 흔히 칫 홀에서 미스 샷이 나는 것은 바로 이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호흡법의 요령은 가슴을 쭉 펴고 배로 심호흡을 하여 체내에 힘을 축적시키는 것이다.

부차적으로 그는 다리 힘을 강화하기 위해 기구운동, 정신집중을 위한 요가를 하고 있으며 목이 남보다 훨씬 길어 백스윙때 턱이 왼쪽 어깨에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머레이는 장타만을 위해 특수 제작된 일제 혼마제품인 46인치 드라이버를 사용한다.

이 드라이버의 헤드는 탄력 강화를 위해 3년간 기름속에 담근 퍼시몬(감나무)이고, 샤프트는 보론. 그는 85년까지 스틸 샤프트를 사용했는데 지난 86년 약 20야드 정도 더 나가는 보론으로 바꿨다. 그림은 손의 감도에 맞게 8겹 감아 다소 굵은 편이다.



10 1990년 3월 30일/골프뉴스



케리·머레이 (33세·캐나다)
세계 최장타 기록 보유자(422.3야드)

세계 롱 드라이빙 챔피언

본지 초청으로 내한한 케리·머레이는 지난 87년 미국의 롱 드라이빙 콘테스트에서 미국의 롱 드라이빙 챔피언인 아트 세링거의 기록을 갱 세계 최장타 기록 보유자이다.

캐나다 밴쿠버의 팬 패시픽 호텔 옥상에서 향해 날린 케리·머레이의 볼이 아트 세링거의 종전 기록인 400야드를 22.3야드나 상회한 422.3야드를 기록함으로써 세계 골프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것이다.

머레이는 캐나다 오픈 3승, 드라이빙 콘테스트 81번 참가, 69번 우승을 했다.

특히 86년 마니토버 오픈 첫날의 10언더파 스코어는 경이적인 것으로 캐나다 투어 사상 최고의 기록으로 현재도 깨지지 않고 있다.



브래드·어트 (33세·캐나다)
표기샷 1인자

환상적인 묘기샷의 명수

머레이와 함께 내한한 브래드·어트(33세·캐나다)는 머레이의 오랜 친구로 현재 골프저널리스트, TV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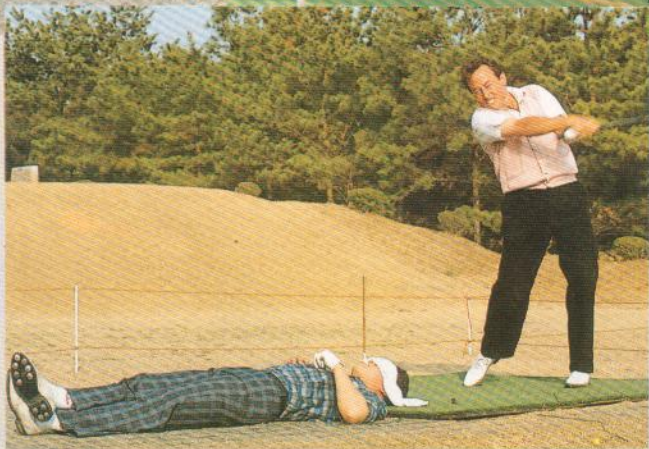
그는 30cm 이상이나 높은 티에서 치는 드라이버 샷, 옆으로 나란히 있는 두개의 볼을 동시에 치는 트릭, 1개의 볼 위에 또 하나의 볼을 살짝 얹어 놓고 치는데, 아래의 볼은 목표를 향하고 위의 볼은 수직으로 올라가 내려올 때는 그 자리에서 한 손으로 볼을 받는 기술, 8개의 볼을 같은 간격으로 놓고 차례차례 치는데 1개의 흑볼, 1개는 슬라이스 볼로 쳐 공중에서 교차시키는 등 환상적인 묘기샷의 명수이다.

세계 최장타자 케리·머레이와 묘기샷 1인자 브래드·어트의 18홀 라운드 렛슨

본지초청



왼쪽부터 박태종프로, 권병순, 본지 부사장, 브래드어트, 안승근, 본지발행인, 케리머레이, 황영일씨, 임대영.



브래드 어트가 임대영 입안에 30cm 높이의 티를 꽂고 샷하는 묘기를 선보이고 있다.

본지 초청으로 내한한 세계 최장타 챔피언 케리·머레이(33세·캐나다)와 묘기 샷 1인자 브래드·어트(33세·캐나다)의 18홀 라운드 렛슨이 3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관악·태광·한성·한양 CC에서 있었다.

3명씩 2개조로 편성, 케리·머레이와 브래드·어트의 9홀 교대 렛슨으로 진행되어 케리·머레이가 장타 비법 렛슨을, 브래드·어트가 환상의 묘기 샷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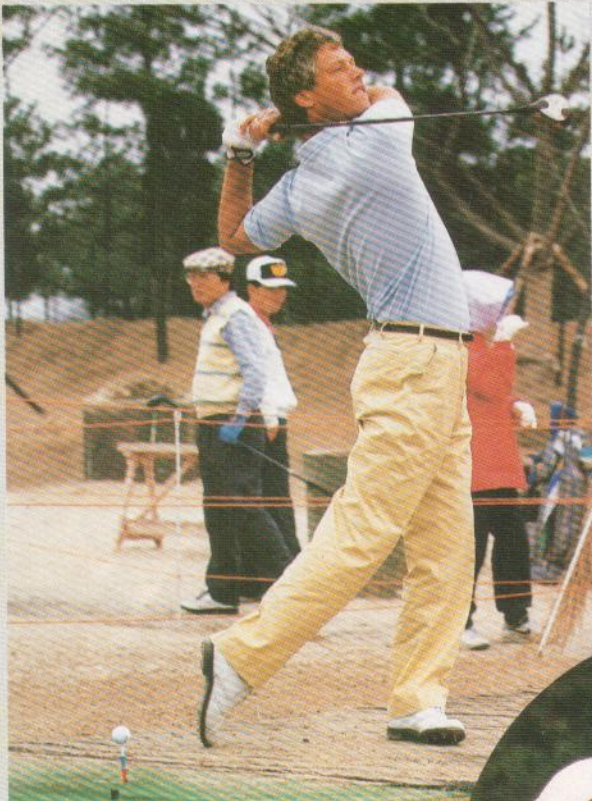
라운드 렛슨이 끝난 3월 25일에는 북악 스카이 연습장에서 케리·머레이의 장타 비법 렛슨이 있었다.

박태종프로의 힘찬 아이언 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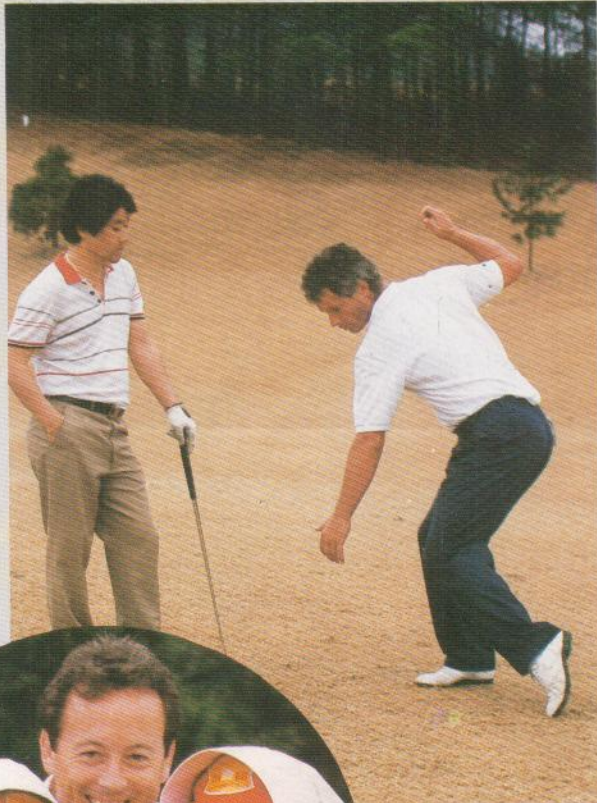


18홀 라운드 렛슨 제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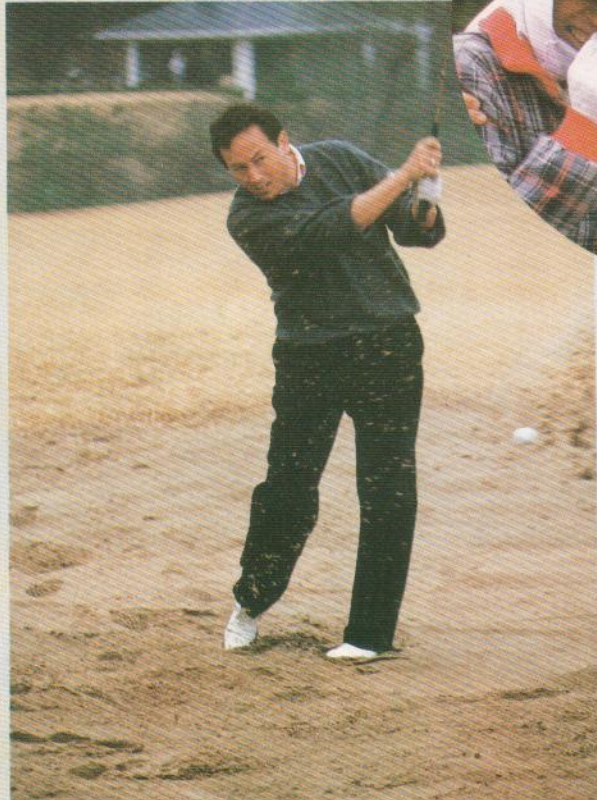
- 일시-1990년 3월 21일
- 장소-관악컨트리클럽 구코스, 파72, 전장



케리·머레이가 3백 50미터가 넘는 특유의 드라이버 샷을 구사하고 있다.



케리·머레이가 장타를 날리는 체중이동 비법을 선보이고 있다.



브래트·어트의 벙커 샷 랫스



제 3 일

- 일시—1990년 3월 23일
- 장소—한성컨트리클럽, 파 72, 전장 6,541 미터